

M-03 14:20 – 14:30

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: evaluation with indirect MRA

원광의대 영상의학교실

정선관, 임세웅, 방동호, 박성훈, 김혜원, 이영환, 김강득

목적: 발목관절의 만성외측불안성정을 보이는 환자에서 경정맥 자기공명 관절조영술에서 보이는 외측부인대의 손상여부와 손상정도, 그리고 동반 병변을 평가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: 최근 2 년간 발목관절의 만성외측불안성정 때문에 경정맥 자기공명 관절조영술후 수술을 받은 29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영상분석은 근골격계 전공 영상의학과 전문의 2 명이 협의하여 임상 및 수술소견에 대한 정보 없이 인대, 건, 뼈 등의 손상 유무 및 정도에 대하여 분석한 후 수술소견과 비교하였다. 인대 손상의 정도는 3 단계로 구분하였다.

결과: 모든 예에서 외측부 인대에 손상이 있었고, 전거비인대 손상은 견열골절형 손상 5 예를 제외한 21 예 중 20 예(95%)에서 경정맥 자기공명 관절조영술상 양성이었고 손상정도에서 일치율은 52%이었다. 종비인대 손상은 견열골절형 손상 2 예를 제외한 23 예 중 22 예(96%)에서 경정맥 자기공명 관절조영술상 양성이었고 손상정도의 일치율은 43%이었다. 동반손상은 24 예(83%)에서 동반되었고, 관절액증가 24 예(83%), 건손상 18 예(62%), 골손상 9 예(31%) 등의 순이었다.

결론: 발목관절 만성외측불안정성의 원인의 하나인 인대 손상의 유무 및 동반 손상을 평가하는데 경정맥 자기공명 관절조영술은 유용하나 인대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.